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52호 해인사 장경판전



세상에서 제일 큰 집

김후란

세상에서 제일 큰 집입니다
 가야산 종덕 해인사
 숨은 듯 깊은 산 속에
 팔만대장경 품어 안고
 오랜 세월의 무게 묵묵히 감당해왔습니다

법보사찰 장경판전
 어느 시대의 눈빛이 이렇듯 강하고
 태산 같은 버팀목 되었으리요
 그 역사 짙어진 하늘 여전히 향기 감돌고
 자부심 짙은 숨결
 멀리 멀리 울리는 종소리입니다

무심한 듯 단조로운 모습
 남쪽 수나라장 북쪽 법보전
 그러나 원할한 통풍 위해 창고 크기 다르게 띄우고
 흙바닥 속에는 숯과 헛기루 소금 모래 차례로 깔아
 습도 조절하여 자연조건 살리면서

참으로 지혜로워라
 합리성 과학성 살린 장경판전

정녕 세상에서 제일 큰 집입니다.
 팔만대장경 귀하고 귀한 겨례의 보물
 뜨겁게 지켜온 우리 겨례의 집입니다.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중에서

김후란 시인은... 서울 출생. 1959년 〈현대문학〉으로 등단. 시집 〈눈 속에 핀 하늘 보았니〉, 〈습득〉 등.

“진실없는 참회 · 성찰은 쇄신의 장애”

사부대중연대회의 ‘한국불교 문제점’ 토론회 개최

“종단이 스님들의 범계행위를 의식해 성찰과 쇄신을 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진실없는 참회와 성찰은 소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성찰과 쇄신은 진실에 대한 조사와 공표로부터 시작한다.”

한국불교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사부대중연대회의(공동대표 만초)와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이수덕)는 7월 12일 만해NGO교육센터에서 ‘한국불교의 문제점과 개혁안’을 주제로 대화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대화마당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한국불교가 자본주의에 매몰되고 정권과의 유착 관계를 맺는 등 스스로의 정당성과 위상을 상실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교수는 한국불교의 문제점으로 △승단의 중세성과 기복신앙 △승단 문화와 계율의 괴리와 이에 따른 범계행위 △근대국가 정권과의 유착 등을 꼽았다.

특히 승단의 문화와 계율 사이의 괴리가 이번 도박 파문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정 집단에서 어떤 것이 문화로 자리를 잡으면, 규범은 그 문화를 규제하는 장애로 자리잡는다”면서 “결국 문화에 맞춰질 때까지 문화와 규범 사이에는 괴리가 생긴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수행자들에게 별보다는 계율

을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자성불의 목소리가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규제를 위해 호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봤다. 이에 호법부를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정하고 양

- 승가문화 · 계율 괴리가 문제
- 현대 승가에 맞는 청구 제정
- 사찰운영위 민주성 담보돼야
- 쇄신안 전반 회의적 목소리도

행기준을 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단의 진정성있는 쇄신을 위해 신뢰받는 출·재가자 함께 참여하는 ‘정정승가정립을 위한 범계행위 진상조사위원회(가칭)’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스님들도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만큼 계율과 청구를 현대화해 도박과 음주를 대체할 만한 놀이문화와 취미, 체육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찰운영위원회 등 조계종 제1차 쇄신계획에 대한 보완책들도 제시됐다. 이 교수는 사찰운영위원회 내의 민주성과 지속성, 감시 체계 확립이 수반돼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님과 재가불자 사이에 권력이



사부대중연대회의 참여불교재가연대는 7월 12일 ‘한국불교의 문제점과 개혁안’을 주제로 대화마당을 개최했다.

비대칭 일 경우 사찰운영위원회는 주지의 의사를 추진하는 형식 기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론자로 나선 김형남 변호사(법무법인 신아)는 신도들이 사찰 운영의 주체로 참여하겠다는 의식적 교육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찰운영위원회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신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이 행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찰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며 “또한 주지가 위촉과 해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사부대중 공의를 통한 사찰운영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종단 쇄신 전반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도 나왔다. 사부대중연대회의 대표 만초 스님

은 “최근 불거진 일련의 문제가 촉매가 돼 자성 또는 쇄신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희망보다는 불신의 분위기가 더 커지는 상황”이라며 “쇄신이 먼저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솔직한 고민이 먼저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초 스님은 “지금처럼 종단의 쇄신 발표에 회의적 정서를 지닌 다수의 중도들의 쇄신 의지를 일깨우고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도들의 공감대와 감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화마당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정산스님, 동출스님,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실무자를 비롯해 재가불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신종일 기자

“사찰 방만 운영, 선각 스님 재임 안돼”

해인사정상화추진회, 11일 기자회견... 재임 반력 촉구

188억원이라는 장기부채를 발생시킨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의 주지 재임 품신을 반력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인사정상화추진회(공동의장 원학·여연, 이하 정상화추진회)는 7월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단 승인없이 사찰재산을 처분한 선각 스님의 주지품신 반력과 중징계를 총무원에 촉구했다.

정상화추진회는 선각 스님의 가장 큰 과오로 2010년 해인사 토지 1만 2천평을 24억원대에 매각한 것을 꼽았다. 이들은 “대장경 조성 천년기념축전 행사 부지로 제공하기 위해 사용됐으나 애초 합천군 예산을 이유로 임대를 원했다. 하지만 선각 스님의 강한 요구로 매가됐다”며 “토지 대금 24억원은 곧바로 선각 스님이 수년 간 수익사업을 해오던 조주고시텔과 소리원 매입 및 건립비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신종일 기자

정상화추진회는 “‘본말사 주지 인사규정’에 따르면 재임 시 종단 승인 없이 사찰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한 자는 본말사 주지에 임명될 수 없다”며 “선각 스님은 2009년 8월 해인사 고불암 무량수전 법당 소유지분 100분의 1을 종단 승인 없이 수천만원대에 매각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단 승인 없이 사찰부동산을 매각하고, 188억원 대 장기채무를 발생시키는 등의 행위는 모두가 중징계 사안”이라며 “총무원법은 총무원이 직무상 저지르는 중범 위반 사안을 일반 스님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돼 있다. 선각 스님은 4년을 끝으로 소임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각 스님은 6월 29일 해인사 방장 스님의 추천을 받아 주지품신 서류를 총무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일 기자

신임 법규위원장 허운 스님 선출

조계종 법규위, 75차 회의서

조계종 신임 법규위원장에 前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조계종 법규위원회는 7월10일 제75차 회의를 열고 새 법규위원장에 허운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간사에는 보경 스님이 선임됐다. 그간 법규위원장은 무상 스님이 송광사 주지로 임명되면서 지난 2월부터 공석으로 있었다. 허운 스님은 선출 직후 “부족한 사람이



위원장을 맡게 됐다. 위원 스님들의 고견을 소중히 받아들여 종단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규위원회 이날 ‘사찰사람 등 록 신청 보류에 대한 중범 위배 심판 청구의 건’과 ‘직권제적 처분의 중헌중범 위반 심판 청구의 건’을 다뤘다. 신종일 기자

조계종 원로회의 7월 20일 개최

조계종 중앙종회가 의결한 종단 쇄신법 인준안이 최종 논의된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산)는 오는 7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

회의실에서 제40차 원로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제190회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종헌 개정안의 인준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종헌개정안은 종정, 원로 의원,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등의 자격을 법적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불교신문 7월 11일 7면 하단 징계공고에 관하여 알립니다.

현대불교신문 7월 11일 7면 하단 규정부장이 선거 한 징계공고는 대한불교원효종 규정원법 제 4장 제 21 조 규정대상자에 관한 사실 조사 후, 규정원장에게 보고하고 포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후 총무원장에게 품계 하여야 함. 제 22 조 그 보고에 의하여 총무원장이 징계를 하여야 함. 규정원법 제 5 장 제 25 조 규정원장은 각급의 총무원에게 의결된 사항을 통보하고 통고를 받은 실무원은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임의로 징계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 26 조 3회 이상 출두요구를 받고도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에 징계 회부처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두요구도 하지 않은 채 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제 29 조 규정대상자에 대한 명예와 위신을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원법을 무시한 채 징계법령을 적용하여 불교신문에 해당 중도들을 공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로 안종명(법명 : 상천), 김상배(법명: 상묵), 손영채(법명 : 우석) 의 치탈도첩에 처한다는 공고는 무효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에서는 규정부장에게 6월 29일자 직위해임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송달된 날짜 이후로는 본 종단의 규정부장으로써의 일체 행위가 금지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향운